“초발심에서 禪 정각까지”…성파 대종사 ‘禪藝’를 만나다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COSMOS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옻회화 · 금니사경 등 120점

“작품이 아닌 생활 속 기록”

연계 학술세미나 · 다도체험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생활 속 기록’으로서 40여 년의 예술가 활동을 이어왔다. 11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대종사의 예술세계를 한 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다.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이번 전시는 밭을 갈구고 예불하는 틈틈이 만든 것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작품’보다 ‘생활 속 기록’에 가깝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느낀 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만들었고, 이것이 100년 후 사람에게도 닿아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40여 년에 걸친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전시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이와 같이 밝혔다.

성황리에 개최중인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는 성파 대종사의 ‘예술인’적 면모에 중점을 둔 전시다. 금니사경, 옻 회화, 설치작품, 칠기도자 등 대종사의 초기 작부터 최신작까지 다방면의 예술작품 120점을 한 데 모아 조망한다.

성파 대종사는 전시를 통해 대중들이 대화의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갖길 기원했다. 대종사는 “우리가 ‘대화’라고 함은 말로, 문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은 바로 ‘예술’”이라며 “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작품에 담아 남기고자 노력했다. 내가 옛날 선연들이 남긴 글과 그림 등을 보고 소통하며 작품 활동한 것처럼, 후대 사람들도 내 작품을 통해 나와 대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같이 대화의 주제와 방법, 어느 하나 같은 것 없는 시대에 여러 주제의식과 의미가 담긴 작품을 보며 대중들은 예술과 대화의 방법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발원했다.

전시를 기획한 이소연 큐레이터는 준비 과정에서 대종사가 “이래서 되겠나”라고 끊임없이 던진 화두가 기획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큐레이터는 “성파 대종사가 ‘자연이 그리고 바람이, 그리고 물이 그렸다’고 표현하시는 추상적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진다”며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신작이 나올지 기대하게 만드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물造物〉, 도자에 옻칠.

같은 날,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파 대종사 특별전 개막을 축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내면세계를 작품으로 드러내고자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진하신 종정 예하의 특별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종정 예하의 작품이 걸린 예술의전당 전체가 선방이 됐다. 이 전시회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성파 스님은 한국 전통 재료인 옻을 활용한 창작기법으로 불교미술·서예·한국화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며 “성파 스님의 아름다운 예술 세계가 담긴 이번 특별전을 통해 관객들 마음에 깊은 위로를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도 단상에 올라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성파 스님의 특별전 개막식에 함께하게 돼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전시회가 일상에 지친 우리 국민께 희망과 안식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통만법도중생, 선지에 수묵채색.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진정한 예술의 힘은 저 같은 범인(凡人)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한민국의 가을이 종정 예하의 예술로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는 너무나 커서, 하나로 담지 못하니 선의 예술, 선예(禪藝)로 표현한 것 같다”며 “‘마음은 세간을 그리는 화가’라고 했다. 스님의 예술세계는 스님 마음으로 그려낸 세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스님의 세간이 전부 펼쳐져 있으니 각자 담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속의 달〉, 옻판에 옻칠.

선예를 아우른 COSMOS

성파 대종사의 선예에 있어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대종사는 전통 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전체 작품을 통틀어 주목되는 재료는 ‘옻’이다. 옻칠을 덧입혀 만든 도자기, 옻을 섞어 그린 그림 등은 옻을 바라보는 대종사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다. 대종사는 “옻이라는 물질은 수천 년 동안 부패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물질”이라며 “변함없는 속성을 가질 물질이었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총 6개의 섹션으로 △태초(太初) △유동(流動) △꿈(夢) △조물(造物) △궤적(軌跡) △물속의 달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인 ‘태초’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암흑물질과 태초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칠흑 같이 어두운 공간에 배치된 크고 작은 검은 기둥들은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초월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했다.

두 번째 섹션 ‘유동’에서는 ‘결과 움직임’의 향연이 펼쳐진다. 옻칠로 물과 바람 등의 유동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물질 너머의 에너지와 기운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동양의 오색(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을 섞어 나타난 우연한 색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서양의 마블링 기법과는 다른 유려한 미를 보여준다.

세 번째 섹션 ‘꿈’에서는 대종사의 초현실세계와 마주한다. 화면에 드러난 묵직한 형태들은 무의식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추상과 구상이 혼재된 인간, 동물, 기하학 형태들은 무의식을 자극해 관람자가 작품과 교감하게 한다.

‘조물’ 섹션에서는 성파 대종사가 도자와 옻칠을 결합하고 공예와 미술을 넘나들며 ‘칠예도자’ 장르를 개척한 과정을 보여준다. 대종사는 저마다 다른 빛깔을 가진 도자들이 ‘초발심에서 선(禪) 정각까지’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흙은 중생인 상태로 수비, 성형, 소성 등의 수행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도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종사의 설명이다.

‘궤적’은 성파 대종사의 생애와 예술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섹션으로, 대종사가 걸어온 예술적 궤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조망한다. 유교의 시서화를 시작으로 불교의 사경과 도자, 그리고 추상적인 옻칠 예술로 확장되는 예술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벽면의 시구들은 대종사가 생애에서 느낀 바를 기록한 것으로, 작품과 연결시켜 읽는다면 새로운 작품해석이 가능하다고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이 설명했다.

마지막 섹션인 ‘물속의 달’에서는 물질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상(相)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옻의 물성이 성파 대종사의 수행과 철학을 만나 조형 언어로 승화되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파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심은록(미술평론가), 이동국(경기도박물관장), 이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인범(미술평론가), 정종미(한국화가, 전 고려대학교 교수), 마엘 벨렉(세르누치미술관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시선에서 성파 대종사의 예술관을 논한다.



